불교 콘텐츠 개발, 이젠 '온라인 스타일'



[기획] 이젠 Z세대 포교다

① 왜 Z세대를 주목하는가

② 유튜브 속 불교 안보인다

③ Z세대 포교 콘텐츠 제언

소통·융합 콘텐츠 확보
사찰문화 변화도 시급
"젊은 스님이 Z포교 잘해
학인 때부터 노하우 전수"

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Z세대를 포교하기 위해 불교계가 변화해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 불교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은 콘텐츠 개발과 교육, 설법 분야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 현장에서는 특히 불교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나영 정토TV 팀장은 "유튜브 속 불교 콘텐츠가 Z세대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대와 소통 가능한 콘텐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의 경우 오프라인과 달리 다수에게 공개돼 즉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은 카이스트 재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시작됐다. 현재 Z세대의 키워드인 취업, 연애, 힐링 등 소통하는 주제로 법문을 해야 한다. 시대 주제를 잘 읽는 콘텐츠는 이러한 시야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장재진 동명대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불교 콘텐츠의 범주를 넓히는 작업이 지속돼야 함을 역설했다. 각 분야의 융합이 일어나는 현재, 유튜브 뿐만 아니라 최근 불교 카툰을 비롯해 애니메이션, 패션 진흥도 Z세대 포교의 한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콘텐츠 분야는 영화, 음악, 출판, 신문, 방송, 광고,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패션문화, 게임, 캐릭터, 만화 등 다양하다. 유튜브 속에는 이러한 콘텐츠가 다양하게 담긴다. 결국 각 분야에 있어서의 불교 융합이 Z세대 포교의 첩경"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콘텐츠 장르 마다 좋은 소재가 불교문화에 있다. 이를 잘 개발할 줄 아는 파워블로거, 웹투니스트, 불교예술가, 게임제작자들을 네트워킹 하고 육성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불자 예술가 모임 핑크붓다의 조수연 대표도 "현재 불교는 그 형식을 추앙하며 쫓고 있다. 종교라는 무거운 주제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친숙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각 사찰별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청년회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조계사와 봉은사를 비롯해 불광사, 한마음선원 등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각종 법문과 행사를 업로드 하고 있다. 봉은사의 경우 신도 연등 조직의 자발적인 영상 촬영, 사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유튜브 채널을 표기해 동영상에 익숙한 이들의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계는 있다. 2011년부터 사찰행사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조계사 인터넷 동영상 담당 이해진 사무관은 "현재 사찰행사나 법문 자체가 사찰 신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 맞지 않는 것이 많다. 요즘 영상은 대부분 이동을 하며 보기에 자막이 필수지만 한문 법어의 내용과, 상대적으로 긴 법문 등 편집이 많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사찰 법회와 법문도 온라인 환경을 고려해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8000여 명의 유튜브 정기구독자를 확보한 불교TV의 김경모 전략기획실 대리는 "방송사도 광고수익이 조금씩 생겨나고, 열성 구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사찰 콘텐츠가 바뀌고 신도들이 이를 구독하게 되면 결국 사찰 수익으로도 이어진다. 영상은 4년 이상 투자해야 효과가 발생한다고 업계서 분석한다. 지속적인 불교계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원영 스님은 승가교육부터의 변화를 강조했다. 원영 스님은 "가톨릭 신도들이 젊은 신부들이 스님들과 소통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본 적이 있다. 결국 콘텐츠를 풍부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불교계 스님들이 변화해야 한다"며 "세대 간 차이는 어쩔 수 없기에 젊은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포교를 잘하는 스님들이 학인 스님 교육부터 포교 노하우를 전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유희좌 도상 고려 수월관음도 첫 발견

정우택 교수, 日조사 중 확인
유희좌 관음보살 도상 '최초'


유희좌를 취한 수월관음도.

한쪽 다리는 곧추 세우고 다른 한쪽 다리는 대좌 아래로 내린 유희좌를 취한 고려 수월관음도가 처음 발견됐다.

정우택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동국대 개교111주년 기념사업회 후원의 일환으로 '일본지역 한국불교미술품의 조사연구'를 시행하던 중 기존 구도와는 다른 새로운 고려 수월관음도를 발견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정 교수가 일본 요코하마의 개인 소장자를 통해 확인한 이 불화는 통례의 고려 수월관음도와는 전혀 다른 도상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수월관음도는 오른쪽 측면을 향하고 반가한 자세로 바위 위에 앉아있지만, 새로 발견된 수월관음도는 얼굴과 상체가 정면을 화면을 향하고 왼발을 아래로 내려뜨린 유희좌를 취하고 있다.

화면 상부에는 세 구의 화불도 눈길을 끈다. 현존하는 40점 가까운 고려 수월관음도 가운데 이처럼 화불이 표현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금니선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마염문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채색 방법과 묘법 특히 형상에 이지러짐이 없이 매우 정확해 14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된다"며 "색상이 부드럽고 깊이가 있다. 정병 등에서 일부 안료가 떨어져 나갔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는 고려 불화를 대표할 만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주4.3사건, 불교계 조명 나서야"

제주불교연합회, 제주4.3 진실규명 위한 세미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된 제주4.3사건과 관련, 제주불교의 피해를 재조명하고 이를 추념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불교연합회(회장 관효)와 제주도의회 길상회(회장 김태석)는 6월 16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서 '제주불교 4.3 진실규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4.3으로 상처난 제주불교의 영혼을 위로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서 한금순 제주대 사학과 외래교수는 "불교계도 제주4.3을 기억하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먼저 제주4.3사건서 발생한 사찰 피해 현황을 짚었다. 그에 따르면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은 약 37개소. 법당과 요사채, 객사 등이 전소되거나 철거·파손됐다. 특히 불상과 탱화, 집기 등의 훼손이 심각해 4.3사건 이전의 장엄물은 소수만 남은 상태다. 또한 조사된 인명 피해는 14개 사찰 16명의 스님으로 총살·수장 등 반인륜적인 가해가 자행됐다.

한 교수는 "수장은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분하는 불법적인 일이었다. 이 때문에 수장 희생자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며 "근대 제주불교 활동을 주도한 승려들이 희생됨에 따라 도내 불교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추념사업이 불교계 차원서 진행돼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의 제주불교는 앞선 인물들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현 시대에 맞는 기억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으로 활용되고 있는 4.3 유적지와 경제활동을 연계하는 사례를 추천한다. 제주불교가 사회의 현재와 역사 속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승국 제주4.3평화재단 기념사업팀장은 "세월이 흐르면서 불교 4.3 유적은 중요성을 인식받지 못한 채 훼손돼 없어지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종단과 사찰 차원에서 1차 조사 작업에 나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 역시 불교 4.3 유적지 기행코스를 만들어 테마기행을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제주불교가 겪은 4.3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자리로, 제주불교계가 관련 추념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주불교연합회는 7월 1일 오전 9시 '4.3피해 사찰순례 및 영가를 위한 헌다례'를 개최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인용 결정 규탄"

종교환경회의, 6월 22일 성명

종교환경회의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인용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6월 22일 발표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종교환경회의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한다. 이러한 법령을 준수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야말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적폐청산이라는 현 정부 방향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이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대국민 소통 '이웃종교스테이' 모집

KCRP, 7월 28일부터 7대 교단 체험활동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2017이웃종교스테이' 모집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6월 20일 시작했다.

이웃종교스테이는 전주·군산지역 순례·용문사·청주향교·영산성지·왜관수도원·영동선교·가리산천도교 수도원 등 전국 7개 교단 종교시설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치며 이웃종교를 이해하는 자리다.

2017이웃종교스테이는 7월 28일을 시작으로 1회당 2박3일, 총 3회로 진행된다. 신청은 홈페이지(harmony week.kr)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 3만원.

김영주 KCRP 대표회장은 "이해와 화합, 종교 간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웃종교스테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